

思索方法에 對한 序論

金桂淑

吾人이 各種 現象을 觀察하며, 或은 그 現象에 接觸할 때에, 그것을 明確하게 理解하면, 아모 問題도 없지만, 萬一에 그와 反對로, 그것[을] 잘 理解하지못한다던지, 或은 全然 解釋할 수 업는 때에는, 疑問으로하고, 或은 그 疑問을 明瞭히 하며, 그 事實과, 그 現象의 確實性을 알려고 勞力한다. 이것이 社會生活을 하는 人間이 가지고 잇는 要求며, 그 行動이다. 더욱 그런 人間의 數가 漸次增加함도 事實이다. 最初에는 神秘한 것을 欲望하며, 그 다음에는 그 原因 根據를 洞察하려고 勞力하다가, 萬一에 그것이 確證되면, 아모 疑問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때에는 그것을 當然한 것으로 아는 것이 吾人の 日常生活에 잇는 일이다. 萬一에 거기 對한 滿足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거기 對한 手段方法을 講究하며, 或은 多大한 努力을 하게 된다. 그런 結果로 或은 滿足하며, 或은 苦惱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世上에는 一次만의 滿足으로는, 首肯치 아니하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繼續적으로 努力하게 되고, 이와갓치 努力하여 探求한 結果, 自己 或은 他人의 只今까지 努力한 것이, 不充分하다던지하여, 既成한 產物에 對하여 不平을 가지고, 그 以上の 發展을 期하려고 舊鬪努力하면, 따라서 人間 或은 事物과의 關係가 生하게 된다.

社會生活을 하고 잇는 人間性으로 보아서, 以上과 갓치 다만 自己만 研究 探索한다던지, 或은 他人의 것을 傍觀만 하고 잇는 것이 아니라, 自己의 것이던지 或은 他人의 것을, 如何한 方式으로던지, 外界에 發展하려고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것이 人間性의 本質을 發揮함이며, 따라서 過去의 歷史를 가지는 것은 勿論이오, 現在에 잇서서 各種 事物과 現象에 關與할 때마다, 그것을 整理하려고 하며, 또는 아즉 來到하지 아니한 將來에 對하여, 突進하려고 하는 것이, 그 結果로 發現되는 것이다. 그러나 中途에 或은 挫折하며, 或은 勝利를 獲得하며, 或은 敗北하게되는 것이다. 그것은 環境, 勿論

自然의 것만이 아니라, 社會的, 思想的, 環境으로 因하여, 左右되기도 하며, 또는 分合盛衰가 있는 것이다. 그 外에 自己의 立場如何에 따라서, 確乎한 觀念을 가지고 前進하는 者도 잇스며, 折衷的, 態度 或은 中間에서 左右를 決하지못하는 者도 잇스며, 或은 過去와 現在, 또는 現在와 將來의 關係가 連絡되지 안키때문에, 苦悶하는 者도 있다. 다음에는 個人의 境遇를 져나서 團體的, 集團的으로 以上과 如한 關係가 잇서서, 서로 均衡을 取하다가는 破裂되며, 그 結果로 或은 鬪爭까지 하게된다.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生産手段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다.

以上에 略述한 것과 갓치 發展進行한 것이, 歷史에 表現되는 文化의 一部分이된다. 따라서 人類의 歷史를 볼때에 더욱 文化方面에 잇서서 人間 行動이 얼마나 表現되었는가를 觀測할 수 있다. 이와 갓치 發展되는 中에서, 이 모든 現象을 整理하며, 体系 잇게 作成하려고 하는 努力과 그 行動은 勿論이오, 그 成果의 表現까지도 明白하게 發顯되는 것이다. 即 各種의 事物과 現象을 体系的으로 組織하려고 하는 努力과 그 成果를, 더욱 그것을 合理的으로 或은 目的에 合하도록, 또는 一元的, 二元的, 乃至多元的으로 体系화된 成果를 볼 수 있다. 事物과 그 現象을 觀察할 때에 그 現象과 全體的으로 볼 때에, 或은 그 本體를 洞察 할때에, 그것은 統一된 것이며, 따라서 서그것이 統一되어 잇스면 잇던 意味와 關係로 統一되어 잇다는 것을 鮮明히 하여야한다. 아니 理論方面의 努力과 行動이 그것을 明白하게 表示하고 있다. 이와 갓치 하여, 今日까지의 歷史에 表現된, 그 成果로 體系화된 것을, 吾人이 名稱하기를 「學」이라하며, 或은 「學的」이란 것으로써 表現하게 된다. 이 「學」 或은 「學的」이라고 名稱함에 對하여는, 여러 가지 意味가 包含되어있다. 普通「學」이라고 稱하면, 科學과 共通는 때도 잇스며, 或은 科學과 區別되는 때도 있다. 그러나 大體로 보아서「學」이라고 하면 組織화된 即 体系的으로 組織된것을 意味한다. 그런 故로 「學」이라고 하면 科學과 哲學을 包含시킨다. 여기 또 問題가 있다. 처음에는 科學과 哲學은 分離된 領域을 各其占有한 것이 아니던 것이, 其後에 兩者가 研究上 區別이 되었스며, 그러나 今日에 잇서서는, 그 兩者 間의 關係는 漸次密接하게 되었다. 그러 면兩者 間에는 全然關係가업스며, 따라서 全然 別個體인가하면 그러치 아니하며, 人間社會의 所産인것만큼 相互關係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方法上」으로 보아서 서로 別個의 領域을 가지게 된다. 大體로 보아서 科學은 事에 對한 個體的 或은 特殊한 關係를 論하는 것이며, 哲學은 그와 反對로 普遍的 研究, 或은 科學의 原理原則을 批判 研究하는 것이다. 勿論 本 序論에서 科學과 哲學의 關係를 詳論하려고함은 아니지만, 科學은 一般的으로 事物 或은 그 現象을 直接把握

하는 것이며, 哲學은 그 以上으로 그런 問題를 다시 一般的으로 問題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갓치 千態萬相으로된 現象을 「學的」으로 體系化하려고 하는 努力을 「思索」이라고 하며, 그새에 取하는 方法을 「思索」方法이라고 한다. 그러나 普通「思索」이라고 하면 「思辯」으로 알며, 「思索的」이라고 하면 「思辯的」으로만 안다. 卞라서 그 意味는 全然經驗의 힘을 빌지 아니하고, 純思惟로써 認識을 「構成」하는 것을 通稱하며, 「思辯哲學」이라고 하면 亦是經驗은 아니고, 理性即 理性的 思惟를 智識의 基礎 또 는唯一의 根據로 하는 理性論的 哲學을 通稱한다. 그리고 그 中에는 「피헤테」「셸링」「헤겔」等 모든 哲學이 屬한다. 또 「思辯的 方法」이라고 하면, 實踐에 對立한 理論으로만 論하는「方法」을 意味하나, 여기 論하려고 하는「思索」은 그런 「思辯」의 意味가 아니다. 卽「思索」이라고 함은 모든 現象-自然的, 社會的, 精神文化的-을 「學的」으로 研究하는, 或은 研究하려고 하는 態度를 通稱함이며, 그 取하는, 「方法」을 「思索方法」이라고 稱한다. 卽 簡單하게 말하면 「思索方法」이라고 함은 事物과 現象에 對한 「學的 研究方法」을 意味함이다. 그러면 何故로 最初부터 「研究方法」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여기에 題目을 「思索方法」-이라고 選擇한 理由와 意味가 잇스며, 또 從來와 다른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本 序論에서는, 序論인것 만큼 그와 갓흔 것을 詳論치 못함은 遺憾이나, 그것은 本 序論의 最後인 「實踐과 理論」이란데서, 略述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思索方法」이란 것은, 各種現象-自然的, 社會的, 精神文化的-을 「學的」으로 研究하는, 그 「方法」을 通稱함이란 意味로써, 다음에 그 根本的 態度를 序論的으로 論述하려고 한다.

人間生活은 그 一日의 生活만으로 滿足하는 것이 아니고, 過去의 歷史 우에 土臺를 確立하고, 그것을 清算하여 現在의 生活을 形成하며, 或은 一層 더 나아가서 未來에 對한 生活을 經營하며, 또는 그것을 善化하며 意味 있게 하며, 卞라서 一層 더 進歩된 生産手段을 案出하려고하는것이, 그 一般的 生活에서 欲求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欲求는 各自의 物的 精神的 關係로 因하여, 成就하다던지 或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갓흔 現象은 또 團體的으로도 잇는 것이다. 이런 過程에서 發生하는 것이 物的, 或은 精神的, 또는 外的 內的 鬪爭이다. 卞라서 歷史의 意味를 發現하게 된다. 그 사이에 「學的」으로 研究가 생기며, 또 「思索方法」이 必要하게된다. 「學」의 發達과 「學」의 必要가여긔잇는 것이며, 이것이 普通 名稱하는 學問의 成立이다. 이 學問의 由來를차즈면, 數千年이 되며, 그 사이에 그 學問의 種類와 分類, 또는 그 研究方法에 잇서서도 形形色色이다. 그러나 如何한 學問을 勿論하고, 如何한 時代

를 不問하고, 現象의 統一的 說明을 그 主體로 하는것 만큼, 더욱 人間生活 形態의한 現象인것만큼, 類似한데가 있다. 그리고 吾人이 普通, 科學이라고 하면, 直接事物에 對하여 即 自然的 或은 社會的 心體的 現象에 對한 것을, 直接把握하는것 만큼, 更言하면 物的 現象을 直接把握하는것 만큼, 確乎한 理論과 共通된 立場을 가지지만, 哲學에 잇서서는, 그와 反對로 比較的 迂遠한 路程 即 問題를 다시 問題로 하는 理論인것 만큼, 前者에 比하여 確乎한 理論과 根據를 確立하기 困難하다. 故로 本 題目에 잇서서는 科學에 關한것 보담 哲學에 關한 것을 論하려고한다. 그러나 決코 哲學에만 限하는것이 아니고, 科學研究에 잇서서도 그 方法上 參考되는 것은 勿論이다. 總括적으로 簡單하게말하면 純粹理論方面-더욱 哲學에 關하여-에 關한 理論的 研究方法을 論함에있다.

研究方法에 잇서서는 大體를 보아서 古代로부터 그 數가 만흐며, 또一定치 아니하며, 그 間의 紛爭도 만흠은 歷史上으로 보던지, 或은 現在에 論議되는 諸 問題를 보아도, 그間 消息은 明確한것이다. 希臘에 잇서서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아리스토텔레스]」가 잇섯으며, 現代에 잇서서도 唯心論과 唯物論 或은 갖은 唯心論 唯物論에서도, 그런 現象을 볼 수 잇는 것이다. 그것은 全部 「思索方法」의 差異에 依함이다. 이와 갖치 分離하며 論爭하는 原因은 大體로 보아서 論究하는 事物과 그 現象인 對象의 如何, 或은 論究하는 사람의 理性을 主體로 함에 依存한 것이다. 그 外에는 그것을 折衷학한다던지 或은 中間을 取하던지한다. 그러면 그中の 何者를 取하겠느냐 하는 것은 重要한 問題나 本 序論의 範圍 外로 한다. 그러나 根本的 論議인것 만큼 本 序論에서는 어느 程度까지 或은 間接적으로 論及됨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意識을 가진 人間으로써, 現象을 把握함에 對하여 全部 同一한 結論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大體로 自然的, 社會的, 心體的, 環境如何에 卞라서 그러케되며, 또는 彼我 中の 何者를 重要視하며 何者를 主體로 하여 把握하며 認識해야 理論을 確立하는데 있다. 그 結果 研究方法에 差異가 生하는 것은 明瞭한 것이다. 卞라서, 客觀的 現象과 意識을 가진 即 認識하는 「我」의 關係를 論할때에, 特殊的인 것과 普遍的인것, 또는 直接性和 間接性的의 差異가 있다.

思索方法의 이와 갖은 差異를 前提로 하고, 哲學的 方面에 發現된 研究方法이 一般的 自然界에 限하였스며, 또 그 時代에는 아즉 科學과 哲學이 今日 처럼 分離되어 잇는 卞가 아니며, 意識을 가진 人間의 認識問題를 問題로 하지 아니하던 時代인것 만큼 그 研究方法은 形而上學的이다. 知識이 發達하는 最初期에 잇서서는 事物과 現象을 觀察하며, 또는 그것을 「學的」으로 研究함

에는 概括的이오. 또 窮極을 探求하는 方法 即 形而上學的 研究方法을 取하게된다. 即 古代에 잇서서는 모든 事物과 現象을 觀察할 때에, 그것을 根源的으로, 더욱 今日과 갓치 種別된「學」으로 研究함이 아니기 때문에, 自然形而上學的 傾向을 띄게된다. 故로 「타-레쓰」는 萬物은 「水」로 되었다 하며 「아낙씨만드로쓰」는 萬物의 本原 은「토- 아파이론」이라고 하였다. 其 外에도 或 萬物의 根原은 「空氣」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그런 것이 왜 萬物의 根原이 되는가를 說明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今日과 갓흔 正確한 學的 研究로 된 것이 아니다. 그 結果로 自然形而上學的 解釋이 되고 ㅁ다. 그러나 그것으로 언제던지 ㅁ足할 수 업는 것이며, 그것을 明示하는 것이 ㅁ史다. 即 其後에는 漸漸實現象을, 勿論 人間界에 ㅁ지는 아주 ㅁ達치 못하였지만, 自然界에 對한 實現象을 觀察하게되는 同時에, 또 中에서 變化를 認定하게 되며, ㅁ라서 以前에는 全然 形而上學的으로만 思惟하던 것이, 이제부터는 그 範圍를 脫出하게 ㅁ였다. 即 「팔메니데쓰」時代에 와서는 現象界와 實質界를 二分하여 思惟하게 ㅁ였다. 이와 갓치 하여 前者에는 可觀性을 가진 感官的 知覺 即 變化성과 事物의 雜多性이 屬하고, 後者에는 現象의 限界를 超越한 世界 即 實在에 關與한 것이 屬한다고 하였다. 故로 實在은 絶對不動性을 가지고, 非實在 即 現象은 絶對可變性을 가졌다고하기 때문에, 이 二元的 論法에 잇서서는 그 兩者 間의 契機는 全然 抽象的이 될 뿐만아니라 絶對的 矛盾이다. 即 兩者 間의 關係를 매즐만한 契機를 發見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後 「헤라크레이토쓰」時代에 와서는 엇더케 ㅁ였느냐하면 「헤라크레이토쓰」는 運動生成을 認定하기 때문에, 그前까지의 觀察方法에 大變革을 惹起하였다. ㅁ라서 「헤라크레이토쓰」는 運動을 實體의 最初屬性이라고하여, 그前까지의 現象界와 超現象界의 二元的 分立을 統一하였다. 이와 갓치 하여 固定的 見解는 動的으로 變化하였스며, 그뿐만 아니라 純形而上學的 觀察을 ㅁ나게 ㅁ였스며, 存在한 것은 全部 變化하며, 變化하는것은 全部 存在한다는것을 看破하였다. 이것이 今日의 哲學的 見解에 ㅁ흔 影響을 주게된 것이다. 이와 갓치 發展함을 ㅁ라서, 自然的 形而上學的 觀察에 局限되던 思索은 漸次로 實存在에, 더욱 그 變化에서 모든 것을 認識하는 一元的 見解로 進展하게되였다. 그다음에는 詭辯學者를 지내서 「소크라테쓰」時代에 와서는 人事 研究에 ㅁ까지 ㅁ達하였다. 이제부터는 人間의 行動에 關한것 또는 知識에 關한 것이 問題되다가 「플라-톤」「아리스토텔레쓰」時代에는 人間의 心理狀態 或은 行動的 人間에 對한 國家的 關係도 論하게되자, 思索方法도 組織化하여 가며, ㅁ라서 問題에 關한 것을 다시 理論的으로 問題삼게 ㅁ였다. 그뿐만 아니라 人間의 理性을 問題로 하게되자, 思索方法이 完全히 發達하였스며, 또

여러 가지 關係에 對한 問題를 論하게되였다. 이와 갖치 하여 내려오다가 十九世紀에와서 獨逸에 「칸트」가 出生하자 -勿論 「칸트」에만 限하는것은 아니지만-더욱 思索에 對한 問題가 論議되였다. 世人이 熟知하는 바와 갖치, 「칸트」의 二元論에 이르러서는 非難하며 批判을 하게된다. 그러나 그것이 獨逸에 잇서서는 理想主義的 哲學의 先驅가 되여서, 所謂 獨逸에 잇서서 古典哲學을 形成하게되였으며, 그 後를 繼承하여 觀念論이 盛旺하니 「헤-겔」에 와서 그 絶頂에 達하였다. 即 그것은 二元論이 一元論으로, 다시 말하면 「헤-겔」은 絶對的精神을 主張하여, 모든 現象이 그것의 表現이라고 하게까지 完成하였다. 그러나 그 反面에 잇서서 그 完成이 다른要素, 다른 時期를 準備하였다. 即 「헤-겔」哲學이 左右中三派로 分立하게 되였다. 大體最近의 傾向을 보면 半世紀前부터는 이 「헤-겔」哲學에 反하여, 다시 「칸트」哲學으로 復舊하게 되였다. 그러나 칸트哲學 그대로에 復舊하지 아니하고, 「칸트」哲學을 알려면 그것을超 越하여야한다는 모양으로 그것을 批判하며, 發展식힘으로써, 그 眞正한 價値를發輝하게 되였다. 그러나 亦是 칸트의 先驗哲學을 繼承하는 것 만큼, 그 方法은 「先天的 方法」이다. 이와 갖흔 方法으로 今日의 新칸트派의 哲學은 威容을 整頓하고있다. 이 「先天的 方法」外에 今日의 哲學界에 잇서서 有力하며, 더욱 「칸트」派 哲學에 對峙하여 잇는 것은 現象學이 그것이다. 「쑤렌타노-」 「마이농」一派의 系統을 가지고 내려오며 「훗셀」에 와서 大成하였다고 할만한獨逸學派의 哲學인데, 이 現象學은 心理學的 直觀主義的方法을 採用하였다. 이와 갖흔 觀念論 以外에 「헤-겔」左派를 繼承한 것으로 客觀的 辨證的 唯物二元論이 있다. 이것은 古代의 「아리스토텔레스」와 近世의 唯物論을 土臺로 하여, 現代의 觀念論이 그 窮極에 達하였다고함에 對하여, 새로운 思索方法으로 開拓하며, 그것을 變革하려고 한다.

大略 以上과 如한 思索方法의 歷史의 變遷을 觀察하여 볼새에, 그와 社會的 關係를 詳說할 必要가 잇스나, 即 그 變遷에 對한 根本的 要素를 探求하여볼 必要가 잇지만, 本 序論에서는 略하고 다만 思索方法을 研究함에는 第一먼저 形而上學的 見解를 쟈나야함을 注意하여야 한다. 萬一에 形而上學的 立場으로서, 모든 現象과 그 關係를 解決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엇던 더 進出치 못할 制限을 받게 된다. 勿論 우리 日常生活의 心理的 狀態와 그 傾向 要求를 觀察 할새에는, 거기에는 形而上學的 要素가 만치만, 우리는 그것으로만 滿足할 수 업게 된다. 그것은 아즉 認識에 對한 實踐的 知識이 發達되지못하기 새문이다. 「形而上學者에 잇서서는, 事物과 그 思惟的 映像인 概念과는 孤立한 各各 別個의 더욱 他와는 關係 업시 考察되는, 固定한 永久不變한 研究의 對象이다.」그러기 새문에 自然積極과 消極과는 絶對的으로 排

除되는 것이며, 原因結果는 相互決定으로 絶對々立하게된다. 이것이 上述한 바와 갓치 運動을 認知하지 아니함이며, 아니 運動은 그 本體로 하야 觀察하지 아니하기 새문이다. 그 結果로 그런 觀察方法은 鑠國的 領域 內에 限하게 되는 것이다. 故로 思索方法에 잇서서는 形而上學的 方法을 排除하고, 相互作用하는 全體를 把握하여야한다. 그새에는 積極과 消極의 兩端이 서로 對立하는 同時에, 또 서로 分離할 수 업슨 關係에 잇다는 것을 確認할수잇는 것이다. 이와 갓흔 것은 獨逸에 잇서서는 「칸트」哲學에서 볼 수 잇다. 勿論 「칸트」에 對하여서는 上述한 바와 갓치 是非의 非難攻擊이 만치만, 一扁的으로 그것을 論할려고 하지 안는다. 그러나 「칸트」의 特有한 態度 即 批判的 精神으로써 보더라도, 贊否의 二元的 要素를 包含한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것이다. 「칸트」哲學에 잇서서 顯著하게는 表現되지 아니하였스나, 아니 그 考察하는 方法을 볼새에는, 以上에 말한 바와 갓흔 努力이 잇슴을 看破하겠다. 더욱 이런 方面을 高調한 것은 新칸트派의 論理主義的 哲學이라고 하겠다. 「코-엔」은 思惟의 生産說을 主張하야 그 意味를 徹底히 할려고하였다. 獨逸의 理想主義는 「칸트」後를 繼承하야, 그것을 純化한 「헤-겔」哲學에 와서는, 完全히 一元論이 되고, 卞라서 兩端의 連絡을 取하는 契機를 發見하게되였다. 自然的, 歷史的, 及 精神的, 世界全體가 一個의 過程으로써 說明되며, 卞라서 不斷의 運動, 變化, 轉換 及 發展을 事物 及 現象의 本體로 하고 그것을 把握하며, 그뿐만 아니라 運動發展의 內的 聯關을 明示하였다. 故로 여기에서는 只今까지의 偶然性이 그 形態를 消滅하였스며, 卞라서 그것이 必然性으로 轉換하게되였다. 그뿐만 아니라 只今까지 外的 或은 內的으로 矛盾이던것이 그 形態를 變하야 綜合으로 進出하게되였다. 이와 갓흔 發展의 根底를 洞察하여보면, 그 歷史的 順序의 整然함을 一目으로 明瞭하게 看破할수잇다. 卽 最初期에는 純自然的, 形而上學的, 觀察이던것이, 漸次로 그 中心이 關係를 學的으로 論하는 學問까지 成立하게되였다. 史的 考察을 하여도 明白한 일이지만, 事物 及 現象을 或은 그 關係를 問題로 할새에는, 그 對象物을 明確하게 把握하며 理解하며 卞라서 正確한 知識을 獲得할려고 하는것이 우리의 努力이며, 그것을 「學的」으로 研究할려고하는 새에 思索方法이 根本的으로 必要하며 意味잇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事物 及 現象 의直接性을 把握하는것 보담, 間接的 方面 卽 問題를 問題로 取扱하는 理論的 方面, 더우기 根本的 原理原則을 總括的으로 論하는 哲學에 와서는, 思索方法은 큰 意味를 가지고 잇다. 이것이 本「思索方法」-에 잇서서 論을 哲學方面에 限할려고 하는 意味다.

「人間生活의 모든 形態에 關한 思索은, 卞라서 또 그들의 科學的 分析은

一般的으로 보아서, 現實의 發展과 反對의 行程을 取한다. 것은 Post Festum 祭祀되가되여서)그러기 때문에 發展過程이 成立된 모든 結果로부터 始作된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程度까지 發達된 形態로부터 出發하여, 그것을 研究할때에 恒常注意할 것은, 그것의 本質이 何處에 잇스며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알기 困難한 것이다. 最初에는 엇던 意識을 가지고 行動한 것이라도, 漸次其後로는 無意識的으로 變化하며, 따라서 그런것을 觀察 할때에, 그 所見과 立場이 變化하는것은 明瞭한 事實이다. 故로 思索方法을 問題할 때에 注意할것은, 엇던 現象을 對象으로하여, 더욱 人間生活形態를 對象으로 하여 論할 때에 그것을 an sich로만 觀察하는 것과, 그러치 아니하고 自他에 關係 식혀서 統一的으로 論하는 an und fuer sich로 觀察하는 것과 그 사이에 相 異가 잇을 것이다. 「칸트」가 二元論 立場을 支持하였지만, 亦是 恒常 그 兩 者 間의 連絡에 努力하며, 或은 現象을 說明함에 잇서서 悟性 觀念-範疇-의 適用을 力說함을 보드래도 An und fuer sich의 形蹟을 볼 수있다. 또 「칸트」는 從來의 形而上學的 觀察을 避하여, 아니 그것을 論함은 認識을 超越함이 然야 二律背反의 斷案을 내리우고 爲先現象을 認識함에는 認識의 能力을 考 察하며 따라서 그 制限을 明示하였다. 그러나 亦是 「칸트」는 그런 것에 對한 最高의 抽象的 地位에 잇는 觀念論으로 보아서, 當然한 歸結인 意識一般을 構成하고, 모든 認識判斷이 그리로부터 發程함을 말하는 同時에, 그와 反面 에는 物自體라는것을 設定하였다. 故로 「칸트」도 形而上學的 見解는 認識에 서 排除하려고 하였지만 An sich를 脫出치 못하기 때문에, 結局은 그 思想 을 알지못하는 가운데 再輸入을 하였으며, 따라서 圖形이라고하는 것으로 統 一하려고하였으나, 不得已 排擊을 當할 二元論을 支持하였으며, 物自體를 主 張하게 되었다. 이것이 「칸트」가 啓蒙哲學의 要素를 가지고 잇는 點이다. 勿 論 그것은觀念論에 잇서서, 더욱 「칸트」와 갖흔 構成哲學에 잇서서 純全히 思惟로써는 抽象을 爲主한 最高의 產物이다. 또 先天的方法으로, 더욱 數學 을 先天的 學的 標準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萬一에 文藝復興以 來로 重要的 問題가 된 意識問題를 徹底히 하며, 實踐的 意識을 論하며, 實 踐的 人間性을 前提로한, 認識을 論한다고 하면 決코 그럴 理致가 업슬줄안 다. An sich 에서亦是 그와 갖치 된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自體內에 矛盾을 胚胎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運動의 概念이 明示되기 까지는完全한表現을 엇지못하였다. 그러나- 勿論 觀念論의一元論으로 完成하였지만- 「헤-겔」에 와서 完全히 運動의 概念이 明示되었다. 故로 「헤-겔」에 와서는 一觀察하는 方法이 「칸트」의 An sich -이것뿐이란 것은 아니다-에 相反하여 An und fuer sich 로 轉廻하였다. 이와 갖치 「헤-겔」은 獨逸 理想主義의 絶頂이며,

따라서 諸 現象은 一元的 絶對精神의 表現이라고 하며, 그 理論은 最高의 絶對的 細象으로 逆上하였으나, 그러나 그 觀察에 있어서서는 實踐的 觀察이 豊富함을 推測할 수 있다. 「헤-겔」哲學에 있어서서는 그 方法論이 辯證法이며, 따라서 內的 矛盾을 認定하였으며, 또 質의 量化를 主張한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적어도 實踐的 觀察에 依據치 아니하면 不可能한 것을 알 수 있다. 卽 觀察이 있어서서는 具體的이었으나, 그 根本的 理論에 있어서서는 絶對的 理念의 發展을 主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自然, 形而上學的 觀念論이라는 非難을 받게 되었으며, 아니, 맞는 것이 當然하게 되었다. 이것이 「헤-겔」은 理論과 實踐을 分離시킨 때문이다. 그러나 그 觀察에 있어서서는 實踐的이기 때문에 運動의 概念을 構取하였으며, 內在的 矛盾까지 明示하였으며, 따라서 發展理論에 있어서서 그 必然性を 確證하였다. An sich 로 볼 때에는 形而上學的이며, 그 結果矛盾이데 것이 An und fuer sich 에 있어서서는 對立化하며, 現象의 發展의 過程이 明確하게 된 것이다. 故로 偶然性도 必然性으로 方面을 轉換하게 된다. 이와 갖치 해야 止揚의 過程이 出現하게 되는 것이다.

An sich로부터 An und fuer sich 까지 發展統一됨에 따라서, 認識의 限線은 只今까지의 限界에서 一步前進하게 된다. 諸現象을 觀察 할 때에 An sich 로 하면, 우리는 더 그 以上の 進出을 못하며, 따라서 思索에 있어서 進退稚谷의 境遇를 當하며, 所謂「危機」에 臨迫하는 것이다. 「칸트」의 二律背反의 本源도 여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後에 와서 思索方法은 An sich뿐만이 아니라 An und fuer sich로 觀察하였기 때문에, 卽 只今까지의 다만 解釋敘述的이던 方法에 變革의 方法, 다시 말하면 實踐的 批判能力의 意味를 加하게 되었다. 哲學에 對하여 迂遠이라고 하는 理由와, 따라서 그의 對象이 무엇인가를 把握하는 能力의 必要를 感하게 되는 것이 여게 있다. 이와 갖흔 過程을 알며, 아니 그것을 理解하는 同時에 根本적으로 그것을 把握함에는 變革의 過程을 理解하여야 된다. 故로 現象을 對象으로하여 觀察 할 때에도 그 直接性和 間接性的의 區別을 明白히 할 수 있으며, 그 必然的 結果를 알게 된다. 그런 故로 그림에는 對象의 周圍 或은 對象을 包圍하고 있는 「예일」을 除去하여야 한다. 故로 對象을 觀察함에 있어서도 An sich 로 볼 뿐만 아니라 An und fuer sich로써 觀察하게 되며, 그 結果로 立場의 概念까지의 到達할 있다. 「헤-겔」哲學에서는 그 方法은 優秀하였으나, 亦是 變革의 過程을 徹底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實踐的 批判哲學이 그 뒤를 繼承하게 되었다. 「칸트」가 在來의 哲學批判綜合하여, 先驗哲學을 主張함도, 英國經驗哲學인 「흠」哲學과 大陸哲學인 理性論을 止揚하여, 自己의 特殊한 더욱 構成的 批判哲學을 成立시켰다. 萬一에 止揚에 過程을 알지 못

하고, 危機에서만 彷徨하며, 그 解決策을 講究치 못하는 때에는 自滅의 運命을 當이며, 또는 以上에 排斥한 形而上學的 思索으로 復舊할 수 막게 다른 道理가 업게 된다. 또 假象을 絶對的 對象으로만 하고 An und fuer sich를 알지 못하며, 따라서 止揚을 理解 못하며, 抽象的 或은 形式論理的, 即 運動發展과 內的 矛盾 及 止揚을 發見치 못하는 때에는 不得已危機에 到達한다.

그뿐만 아니라 主體, 客體 間에 잇서서, 恒常 同一律으로써만 判斷하며, 或은 全稱判斷으로써만 判斷할 때에는 危機를 脫出하기 困難한 것이다. 對象을 認識하는 「我」를 볼때에, 或의 現象 及 事態를 觀察할 때에, 作用이 있다고, 그 作用自體만을 觀察 할때에는, 如何한 □□도 發見하기 困難한 것이다. 作用이라고 稱하면 벌써 무엇이 作用인 것을 表示하는 것인즉, 眞理의 把握 或은 그 理論的 設定이라는 것은, 그 間關係를 明示함에 있다. 이것이 亦是 以上에 말한 An sich 와 An und fuer sich 의 關係를 明瞭하게 理解함에 依存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에마」와 「노에씨쓰」의 關係를 明確하게 把握하며 證明할 수 있다. 故로 如來한 作用을 觀察하던지, 或은 如何한 動作을 問題로 할때에는, 더욱 그 本質과 갖힌 것을 論할 때에는, 爲先 以上과 如한 方法을 明確하게 捕捉하여야한다. 作用을 或은 動體를 對象으로 할때에, 最初에 An sich로 觀察하던 때와, 그다음 An und fuer sich 로 觀察하던 때와는 相異한 것을 發見한다. 또 形相化的 抽象作用에 依하여야었던 同一物을 把握할때, 或은 精神的 內在的 作用을 對象으로 할때 反省이라던지 內在的 內至 意向的 精神 斷片 Bestandstücke을 意識內容으로 觀察할때의 困難을 突破함에도 亦是 以上과 如한 것을 잘 理解하여야 한다.

最後로 理論과 實踐과의 問題지만, 이것은 根本的 問題에 關聯되는 것이며, 또 그것을 詳論함에는 存在와 當爲를 論하여야 함으로, 여기서는 略述한다. 本 序論에서는 歷史的 敘述列舉라던지 或은 特殊한 詳說을 要하는 것은 範圍 外에 屬한 것이다. 哲學에 잇서서 只今까지 普通 實踐的 問題는 等閑視하여왔다. 다만 思惟만으로써 完全한 表現을 獲得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古代에도 思惟만으로 形成된 것으로 詭辯的 哲學이 成立되었스며, 近世에 와서도 「피히테」 「셸링」 「헤-겔」等 哲學을 思辯的 哲學이라고하는 것은 思惟을 너무 過重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體系가 理論化하였다고 함보담도 그것은 極도로 抽象化한 것이다. 從來에 잇서서 哲學은 勿論이오. 모든 學問이 抽象的일수록 意味深長한 것이며, 眞理를 包含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그것이 思索의 本職務能이 아니다. 처음에 말한 것과 갖치 그런 것을 校正하기 때문에, 本論이 成立되는 것이다. 「사람은 實踐에서 眞理를, 即 現實性과 能力 人間思索의 此 岸性을 立證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實踐에서 分離된 思考가 現實性이나, 非現實性이나 하는 것은 純全한 煩 □ 學派의 問題다.」對象을 問題로 할새의 主客 間의 問題다. 兩 者間에 잇서서 眞理를 表現하는것은 實踐을 分離하고서는 不可能한 것이며, 紗라서 理論으로 말하면 그 本質上 實踐性和 分離하지 못하는 것이다. 卽 理論은 實踐과 相合하여 信一的 發展에서 完全한 眞理를 表現하는 것이다. 이와 갖치하여 「範疇 卽……因果性和 갖흔 純全한 普遍的 概念은 한便으로는 論理的 決定 이오, 다른 便으로는 事物의 實在的 形式이다. 또 思惟의 一般的 決定 又是 論理的形式은, 그것과 同時에 事物其 自體의 實現的 決定이기 새문에, 範疇 又是 形式이 普遍的이오. 全般的인 것(以下六十一頁)